

11월28일(월)/히6:9~12

제목: 권태기가 오면 이렇게 하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사람의 선행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희망을 성취하기까지 끝까지 열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권고하고 있다(10~11절). 그리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써 끝까지 전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하였다(12절). 그는 중간에 낙망하여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권태기가 온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의 모든 예배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각 기관에서의 봉사에 보람과 기쁨을 상실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한다. 하나는 그 모든 일을 중단해버리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앙을 잃게 된다. 또 다른 한가지는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계속 그 일을 참고 하는 경우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희안하게 일의 보람과 기쁨이 다시 되돌아온다. 종종 신앙의 메너리즘에 빠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언젠가는 다시 원상복귀된다. 권태기가 올 때 방학을 선언하면 그것이 다시 복귀되기 보다는 더 처져 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영원한 방학으로 들어가게 된다.

11월29일(화)/히6:13~20 (1)

제목: 하나님의 속타는 사정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며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13~14절).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말은 매우 특이한 표현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어받을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써 보증하셨다고 두 번 강조하였다(17절). 그리고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려서 그 약속을 받았다(15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것은 그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지 25년이 지난 후였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계속 들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계속 임신하지 상태로 지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이 100%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간곡히 맹세하고 또 맹세하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지간히 인내하지 못하는 버릇이 있다. 입장이 바뀌어도 너무 바뀐 것 같다.

11월30일(수)/히6:13~20 (2)

제목: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인간은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18절). 이 소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다(19절). 성전 안에 가장 신성한 장소는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이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이 안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선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가장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20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매우 친근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친하게 되었다는 말은 너무나 황홀하고 가슴 벅찬 것이다. 유명인사와 친하게 지내도 가슴이 벅차 오르는데 말이다. 크리스찬은 우주보다 크신 존재를 친구로 삼은 자이다.

12월1일(목)/ 히7:1~3

제목: 멜기세덱과 예수님 (1)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1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연합국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해주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전리품의 십일조를 나누어주었다(2~3절).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왕이라는 칭호는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다(3절).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직 맡았다(3절). 멜기세덱은 아론 계열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도 멜기세덱과 같은 방식으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할 수 있는 한 예를 구약시대부터 예비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성과 노력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져 왔다.

12월2일(금)/히7:4~10

제목: 멜기세덱과 예수님 (2)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십일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4절). 본래 십일조는 레위 자손과 레위 자손 중 제사장으로 구분된 자들이 백성들로부터 받도록 되어있다(5절).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와 아무 상관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십일조를 받았고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6절). 히브리서 기자는 축복은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이라고 기술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다(7절).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들도 십일조를 받고 멜기세덱도 십일조를 받았으나 제사장들은 죽을 사람들이고 멜기세덱은 성경이 증거한대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며 멜기세덱을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또 한번 나타낸다(8절).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친 것은 레위지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친 셈이 된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9~10절). 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멜기세덱은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님으로 확신할 수 있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